

중국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본 신(信)관념*

-제주지역 공유재 연구를 위한 담론-

정창원**

<차례>

- I. 서언
- II. 信의 含意
- III. 춘추시대의 會盟과 信의 重視
- IV. 결언

국문요약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이 지향하는 공유재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 “공유재의 사용과 관리”라는 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사회적인 약속 - 信”이라는 관념적 기초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자간의 의식 속에 함유된 信의 관념이 유지될 때 비로소 공유재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한 합리적인 구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회적 약속인 「信」관념이 중국의 고대사회, 그 시대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상술한 개념의 정립을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여기에서는 동양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태동하게 되는 중국 고대의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信관념의 인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信」이 실질적 개인의 도덕행위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었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30-B00108)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조교수.

다. 그러나 信이 진정 윤리도덕의 관념이 된 것은 춘추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시기 유가가 이를 계승하여 완벽한 사상체계를 건립하였다. 선진시기 諸子의 信에 대한 견해는 비록 각기 다른 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信이 중요한 도덕윤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하였다. 춘추시대는 비록 예와 악이 붕괴되고 周 天子의 지위가 상실되어 패주와 서약, 결맹 등에 의존하여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信의 관념이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춘추의 정치로 하여금 상당한 도덕성을 갖추게 하였고, 회맹정치의 발흥과 발전으로부터 당시 사람들이 信에 대한 重視를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信, 利, 春秋時代, 자연의 공공적 관리

I. 서언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이 지향하는 공유재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 “공유재의 사용과 관리”라는 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사회적인 약속 - 信”이라는 관념적 기초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자간의 의식 속에 함유된 信의 관념이 유지될 때 비로소 공유재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한 합리적인 구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적 약속인 「信」관념이 중국의 고대사회, 그 시대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상술한 개념의 정립을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여기에서는 동양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태동하게 되는 중국고대의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信관념의 인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史記·六國年表序』에는 “...육국이 강대해 진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제후들은) 병력을 강화하여 적을 병합하기에 힘써 음모와 사기가

자행되니 縱橫과 短長の 說이 일어났다. 왕명을 사칭한 제후들이 벌떼와 같이 판을 치고, 맹세를 하고서도 믿음을 저버리니, 비록 인질을 두고 부절을 나누어도 도리어 약속할 수가 없었다”¹⁾라는 기사가 보인다. 또한 『日知錄』 卷十三 「周末風俗」에도 “春秋時에는 오히려 禮와 信을 존중하였으나, 七國에서는 끊어져 禮와 信을 말하지 않았다”²⁾라고 언급하고 있어 춘추시기에서 전국시기에 이르면서 信에 대한 관념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信의 관념이 이미 사람들에게 중시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탐색이 진행된 바 없다.

춘추시기 썸은 解揚을 宋으로 사신으로 보냈는데 도중에 鄭人에게 사로잡혀 楚王에게 바쳐진 사실이 있다.³⁾ 당시 초왕은 해양을 회유하여 썸이 宋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도록 했으나, 후에 해양이 도리어 초왕을 기만하자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해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듣기에 군왕이 정확히 명할 수 있음이 義이고, 신하가 군왕의 命을 이어받는 것이 信이라 하였습니다. 信이 의를 관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利입니다.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여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백성의 주인입니다. 義에는 두 개의 信이 없으며, 信에도 두 개의 命은

1) 『史記·六國年表序』(臺北, 鼎文書局, 民國88年6月, 十一版), 685쪽: 六國之盛自此始. 務在彊兵并敵, 謀詐用而從衡短長之說起. 矯稱讒出, 誓盟不信, 雖置質剖符猶不能約束也.

2) 『日知錄』 卷十三 「周末風俗」, 『欽定四庫全書』 子部: 春秋時, 猶尊禮重信, 而七國則絕不言禮與信矣.

3) 『史記·晉世家』, 1677쪽: 六年, 楚伐宋, 宋來告急晉. 晉欲救之, 伯宗謀曰: 「楚, 天方開之, 不可當。」乃使解揚 紿爲救宋. 鄭人執與楚, 楚厚賜 … .

없습니다. 군왕이 신하를 매수하려 함은 '信에는 두 개의 命이 없다'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군왕의 命을 받아 나아갔으니 비록 죽을지언정 군왕의 命을 버릴 수 없거늘 또한 어찌 매수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군왕의 命을 받아들였으니, 군왕의 命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서 命을 이루는 것은 신의 복록입니다. 우리 군왕에게 信을 지키는 신하가 있고, 신하가 이를 이룰 수 있다면 죽음을 구하는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⁴⁾

상술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은 초왕의 매수, 심지어는 생사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군왕의 명령에 대한 믿음과 군주에 대한 충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로 春秋時代 사람들의 信에 대한 堅持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러나 춘추전국의 대혼란기에 처해져 서로 국면에 접어들면서 信에 대한 이러한 인격적 견지를 요구하는 데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信관념은 왜곡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한탄하게 되었다.⁵⁾ 이와 더불어 『戰國策』에는 蘇代가 燕 昭王에게 말한 다음의 기사가 보인다.

信이 尾生高와 같다면 곧 사람을 속이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廉이 鮑焦·史鮒와 같다면 곧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 신은 廉이 身과 함께 드러나지 않고, 義는 生과 함께

4) 『左傳·宣公十五年』, 『春秋左傳今註今譯』中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598-599쪽: 臣聞之, 君能制命爲義, 臣能承命爲信. 信載義而行之爲利. 謀不失利, 以衛社稷, 民之主也. 義無二信, 信無二命. 君之賂臣, 不知命也. 受命以出, 有死無貲, 又可賂乎? 臣之許君, 以成命也. 死而成命, 臣之祿也. 寡君有信臣. 下臣獲考, 死又何求!

5) 『左傳·隱公三年』, 『春秋左傳今註今譯』上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15쪽: 周와 鄭이 인질을 교환하였으나 도리어 약속을 깨트리고 서로 원수가 되자, 君子는 「信不由中, 質無益也」라고 말하였다.

설 수 없다고 여깁니다. 仁義라고 하는 것은 自完의 道이지 進取의 術은 아닌 것입니다.⁶⁾

상술한 인용문에 보이는 尾生之信에 대해 혹자는 지키기에 어리석은 약속이라 할 수도 있고, 혹자는 죽기까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라고 한다. 약속은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이다. 그것은 곧信義와 통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이는 소대의 언급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信관념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가치에 內在된 의미가 外在된 장애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는지, 혹은 윤리도덕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춘추시기의 정치상황하에서 信관념의 변화가 가지고 온 시대의 변화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춘추시대의 기풍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탐색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영향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고자 한다.

II. 信의 含意

『國語·周語』“口以庇信”의 韋昭注에 따르면 “庇, 覆也. 言行相覆則爲信”⁷⁾이라 하여 信은 곧 언행일치의 개인도덕행위로서 遠古시대에 이러한 행위의 존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西周시기에 이르기

6) 『戰國策·燕策一』(臺北, 里仁, 民國71年), 蘇代謂燕昭王, 1071쪽: 信如尾生高, 則不過不欺人耳. 廉如鮑焦·史鮒, 則不過不竊人之財耳. …臣以爲廉不與身俱達, 義不與生俱立. 仁義者, 自完之道也, 非進取之術也.

7) 『國語·周語下』卷三, 『欽定四庫全書』史部.

까지 아직 이와 같은 도덕적 사실의 완전한 관념체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信**이 윤리개념의 범주로 성립하게 된 것은 마땅히 춘추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黃開國, 民國85年: 18쪽).⁸⁾ 춘추시대의 문헌 중에는 「**信**」이라는 글자가 종종 출현⁹⁾하는데, 이는 이 시기 이미 **信**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추시대 **信**은 윤리도덕관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不朽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것은 先秦儒家로부터 계승된 것이 가장 많았던 이유로 유가학설의 중요한 사상체계로 자리하게 되었고, 공자의 수많은 論說은 바로 춘추시대의 논설과 相通하게 된 것이다(黃開國, 民國85年: 19-24쪽).¹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자의 중심사상은 「**仁**」이라고 할 수 있는데, 子張이 일찍이 공자에게 **仁**이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천하에서 능히 다섯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을 **仁**이라 한다. …恭敬, 寬厚, 誠信, 勤敏, 惠愛. 공경은 즉 모욕하지 않음이요 ; 관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요 ; 성신은 곧 사람으로 신뢰하는 바요 ; 근민은 능히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요 ; 혜에는 즉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쓰이게 하는 것이다.¹¹⁾

8) 黃開國(民國85年 3月), 「春秋時期的仁義忠信觀」, 『孔孟月刊』第34卷 第7期.

9) 예를 들자면, 『國語·周語上』에 周 內史過가 “制義庶孚, 信也”라고 말한 바 있고, 『左傳·僖公七年』에서 管仲은 “守命共時之謂信”이라고 하였다. 또한 『國語·晉語』에서는 宮之奇가 “定身以行事謂之信”이라 하였고, 『左傳·昭公六年』에 보면 晏子가 “作大事不以信, 未嘗可也”라 말하고 있다.

10) 앞의 논문, 「春秋時期的仁義忠信觀」.

11) 『論語·陽貨』, 『論語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272쪽: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請問之, 曰: 「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또한 “한사람의 말에 신뢰가 없다면 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만약에 큰 수레와 작은 수레에 끌채의 쇠기와 멩에가 없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¹²⁾, “군자는 義로써 일을 하고, 禮로써 義를 행하며, 겸허함으로 말을 하니, 말에는 신뢰가 있는 것이다”¹³⁾라고 하는 공자의 언급에서도 춘추시대 信에 대한 관념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立身處事함에 있어 가장 근본으로 자리하며, 더욱이 고상한 인격정서에 있어 信이 지니는 특질은 결코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더욱 발양하였는데, 그는 信이라고 하는 개인도덕을 갖춘 후 진일보하여 超凡入聖의 경지로까지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고 좋다고 칭하는 것을 善이라 하고 ; 本身에 선한 행위를 갖춘 것을 信이라 말한다 ; 선행이 충만한 것을 美라고 하고 ; 선행이 충만하여 크게 발휘되는 것을 大라 하며 ; 이미 크게 되어 化한 것을 聖이라 하고 ; 聖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것을 神이라 한다.¹⁴⁾

고 하여 信을 갖추는 것은 단지 「美·大·聖·神」 4개 등급의 아래일 뿐이라고 여겼다. 荀子の 信에 대한 시각은 공자를 따르고 있다. 그는

12) 『論語·爲政』, 28쪽 : 子曰 : 「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13) 『論語·衛靈公』, 248쪽 : 子曰 : 「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14) 『孟子·盡心下』, 『孟子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402쪽 : 「何謂善? 何謂信?」曰 : 「可欲之謂善. 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

개인도덕정서의 배양을 강조하였는데 信은 修身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즉,

만약 몸소 공경을 수용하여 마음에 忠信이 있고, 예의를 본받아 행하여 본성이 愛仁에 속한다면, 비록 四夷의 곤궁함에 처하더라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풍요롭고 즐거운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하며, 살피어 삼가함에 誠信하고 두루 갖추어 지킨다면 천하를 널리 다니며 四夷에 곤궁할지라도 그를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¹⁵⁾

信은 선진유가에 의해 명확한 윤리사상체계로 수립되었고, 유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덕윤리와 사회정치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 개인은 윤리도덕의 수양을 통하여 몸소 孝·悌·忠·信·禮·義 등과 같은 윤리도덕규범을 실천하였고 이것이 바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관료로 종사하며 정치에 종사하는 길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었기에 聖人이 능히 천하에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숭고한 도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傅劍平, 1995: 144-145쪽).¹⁶⁾

儒家이외에도 제자백가 또한 信에 대해 토론하였다. 道家에서 말하는 도덕은 자연적 천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바로 통치자와 일반백성 사이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즉 『老子·四十九章』에 따르면,

성인은 늘 사심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자는 선하게 여기고 선하지 않는 자도 선하게 여겨 선을 얻음이다. 미더운

15) 『荀子·修身』, 『荀子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23쪽: 體恭敬而心忠信, 術禮義而情愛人, 橫行天下, 雖困四夷, 人莫不貴; 勞苦之事則爭先, 饒樂之事則能讓, 端慤誠信, 拘守而詳, 橫行天下, 雖困四夷, 人莫不任.

16) 傅劍平(1995), 『縱橫家與中國文化』, 臺北, 文津出版社.

자는 미덥게 여기고 미덥지 않는 자도 미덥게 여기니 미더움을 얻음이다. 성인이 천하에 임할 때는 치우침 없이 천하를 위해 그 마음을 혼후하게 한다. 백성은 모두 그에게 눈과 귀를 집중하고 성인은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¹⁷⁾

유가가 표방한 仁義道德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천성을 다치게 하고 도덕을 훼손케 한다는 것이다. 莊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무의 순박함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소머리를 조각한 술잔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백옥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옥으로 된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는가! 도와 덕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찌 인의에 의지하지 않겠는가! 본성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았다더라면 어찌 예악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 소박함을 훼손하여 기구를 만드는 것은 工匠의 죄요, 도덕을 무너뜨림으로 인의를 내세우는 것은 성인의 죄이다.¹⁸⁾

도가가 믿이라고 하는 도덕관념을 반대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수많은 제도로 규범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말하자면 “성인들이 이를 위해 斗斛으로 헤아리니, 大盜는 즉 그와 같이 斗斛으로 훔치게 되고, 이를 위해 權衡으로 가리게 되니 아울러 權衡으로 훔치게 되고, 이를 위해 符璽로 그를 믿게 된 즉 아울러 符璽로 훔치게 되고, 이를 위해 仁義로 바로잡으니, 즉 仁義로 훔치게 된 것이다”(姚秀彥, 民國79年: 355쪽)¹⁹⁾

17) 『老子·四十九章』, 『諸子集成』(北京, 中華書局, 1954), 56쪽: 聖人常無心, 以百姓心爲心. 善者, 吾善之; 不善者, 吾亦善之; 德善. 信者, 吾信之; 不信者, 吾亦信之; 德信. 聖人在天下, 歛歛焉, 爲天下渾其心, 百姓皆注其耳目, 聖人皆孩之.

18) 『莊子·馬蹄』, 『諸子集成』(北京, 中華書局, 1954), 334쪽: 純樸不殘, 孰爲犧尊! 白玉不毀, 孰爲珪璋! 道德不廢, 安取仁義! 性情不離, 安用禮樂! … 夫殘樸以爲器, 工匠之罪也; 毀道德以爲仁義, 聖人之過也.

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천하에 크나큰 혼란을 조성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맹자의 楊朱와 墨家에 대한 비평에서 보자면, 유가는 仁·義·禮·智·信을 제창하고 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 피차간의 서로 처해진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비교적 건전한 사상으로 이기적인 쾌락설을 주장한 양주의 「拔一脛毛利天下，吾不爲也」에 비하자면 유가는 「捨生取義」를 중시하여 그 경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묵가의 俠士와 유사한 행위에 이르러서는 공자는 이것을 「下士」의 德行으로 치부하였을 뿐이고, 맹지는 더 나아가 “大人은 말함에 믿음을 期必하지 않고, 행함에 결과를 期必하지 않고, 오직 義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고 하여 守信이 곧 義를 고려할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張樹國, 2001: 20-21쪽).²⁰⁾

法家가 강조한 것은 「以法行言」과 「信賞必罰」로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 또한 일찍이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으며, 신의가 없으면(백성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²¹⁾고 말한바 있으나, 법가는 信의 관념을 통치의 도구로 간주한 것이고 더욱이 통치자가 이러한 부분을 장악하려면 자신의 위세를 세움으로써 臣民을 통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韓非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즉,

작은 신의가 성취되면 큰 신의가 확립된다.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신의를 지키어 쌓는다. 상벌을 행함에 신의가 없으면 금지나 명령이 행하여지지

19) 姚秀彥(民國79年), 『先秦史』, 臺北, 三民書局.

20) 張樹國(2001), 『信義的追求』,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1) 『論語·顏淵』, 190쪽: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않을 것이다.²²⁾

법에 신뢰가 없다면 군주의 앞길이 위태로울 것이며, 형벌이 준엄하게 단행되지 않으면 악을 누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²³⁾

그러나 『信』의 관념이 윤리도덕의 관념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時空의 변천과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순식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政治에서 운용되면서 여전히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司馬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릇 信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갖추어야 할 커다란 보배입니다. 나라는 백성에게서 보위되며 백성은 믿음에서 보위되니, 믿음이 아니면 백성들을 부릴 수 없고, 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옛날의 제왕된 사람은 四海를 속이지 않았고, 霸權을 가진 사람도 四隣을 속이지 않았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속이지 않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친한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에 반대되었으니 이웃나라를 속이고, 그 백성들을 속였으며, 심한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고 그 부자를 속였습니다. 위사람이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위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 위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마음이 흩어져 실패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운 바는 다친 것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없고, 얻은 것은 없어진 것을 보충할 수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옛날 齊의 桓公은 曹沫과의 맹약을 배반하지 않았고, 晉의 文公은 原을 차지하는 이익에 욕심 내지 않았으며, 魏의 文侯는 虞人과의 기약을 버리지 않았고, 秦의 孝公은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을 없이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네 군주 된 사람은 비록 道에서는 아주 순수하지 않았고,

22) 『韓非子·外儲說左上』, 『韓非子今註今譯』 下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546쪽 : 小信成則大信立, 故明主積於信. 賞罰不信, 則禁令不行.

23) 『韓非子·有度』, 『韓非子今註今譯』 上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290쪽 : 法不信, 則君行危矣. 刑不斷, 則邪不勝矣.

또 商君은 더욱 각박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또한 싸우고 공격하는 시대에 살면서 천하가 속이는 힘을 좇고 있는데도 오히려 감히 믿음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길렀는데, 허물며 사해를 고르게 잘 다스리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야²⁴⁾

信은 언제나 통치자에 의해 통치의 도구로 활용되었기는 하지만, 信을 저버리고 기만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다다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Ⅲ. 춘추시대 會盟과 信의 重視

춘추시대 비록 周天子의 지위가 쇠락하고 패주가 정치적 국면을 주도 하였다고는 하지만, 各國 간에는 여전히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公羊傳』의 기제에 따르면,

맹약함을 犯하였으나 桓公은 속이지 아니하였다. 曹子(曹沫)이 복수하고자 하였으나 桓公은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桓公의 믿음이 천하에 드러난 것은 柯의 맹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²⁵⁾

24) 司馬光, 『自治通鑑·周紀』(臺北, 宏業書局, 民國82年10月, 再版), 48-49쪽: 臣光曰: 夫信者, 人君之大寶也. 國保於民, 民保於信, 非信無以使民, 非民無以守國. 是故古之王者不欺四海, 霸者不欺四鄰, 善爲國者不欺其民, 善爲家者不欺其親. 不善者反之, 欺其鄰國, 欺其百姓, 甚者欺其兄弟, 欺其父子. 上不信下, 下不信上, 上下離心, 以至於欺. 所利不能樂其所傷, 所獲不能補其所亡, 豈不哀哉! 昔齊桓公不背曹沫之盟, 晉文公不貪伐原之利, 魏文侯不棄虞人之期, 秦孝公不廢徙木之賞. 此四君者道非粹白, 而商君尤稱刻薄, 又處戰攻之世, 天下趨於詐力, 猶且不敢忘信以畜其民, 況爲四海治平之政者哉!

25) 『公羊傳·莊公十三年』, 『春秋公羊傳今註今譯』上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119쪽: 要盟可犯, 而桓公不欺. 曹子可仇, 而桓公不怨, 桓公之信著乎天下,

상술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會盟정치로부터 춘추시대의 信의 관념을 탐색해 보면 이것은 바로 그들이 건립하고자 했던 질서의 기초였다. 『公羊傳』에서는 또한 “古者不盟，結言而退”²⁶⁾라고 하였지만, 이로부터 더욱 이른 시기에 회맹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회맹은 춘추시대에 있어 특수한 의의와 작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習俗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莫金山은 “최초의 회맹은 원시사회말기의 부족연맹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 … 회맹은 五帝시기에 이미 존재하였다”라고 주장(莫金山, 1996: 14쪽)²⁷⁾하기도 하였고, 張二國 또한 비슷한 시각으로 회맹 습속은 적어도 원시사회 부락연맹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黃二國, 1995: 48쪽)²⁸⁾고 하였다. 徐中芷는 이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는 盟誓가 殷 이래로 존재해 왔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徐中芷, 民國81年: 1쪽).²⁹⁾ 李模는 그 시기를 더욱 늦추어 西周를 맹서의 형성기라고 보았다(李模, 1997: 21-22쪽).³⁰⁾ 회맹의 기원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각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西周시대에 회맹제도가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劉伯驥 또한 “대체적으로 結言作誓는 殷俗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회맹이 제도로서 성립된 것은 周禮가 뚜렷하게 된 이후이다”(劉伯驥, 民國51年: 234쪽)³¹⁾라는 시각을

自柯之盟始焉。

26) 『公羊傳·桓公三年』, 『春秋公羊傳今註今譯』, 上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47쪽.

27) 莫金山(1996), 「春秋列國會盟之演變」, 『史學月刊』, 1996年 第1期.

28) 黃二國(1995), 「春秋列國會盟之演變」, 『中國古代史(一)』, 1995年 第5期.

29) 徐中芷(民國81年), 「春秋時代의 盟誓」, 國立清華大學歷史研究所碩士論文.

30) 李模(1997), 「試論先秦盟誓之制的演化」, 『殷都學刊』, 1997年 第4期.

보이고 있다.

『釋名』에 의하면 ‘盟은 明으로 告其事於神明也’³²⁾라 하고 있고, 『周禮·司盟』에서는 ‘무릇 邦國이 한데 뭉치어 회동하게 되면, 그 맹약의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와 그 예의를 관장하고, 北面하여 明神에 맹서를 읽어 알린다’³³⁾라고 하여 최초의盟은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天神의 역량으로 상호신뢰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애초 민간사회가 귀신을 경외하는 신앙과 유관한 것으로 殷시대까지 지속되면서 자연은 「天」 또는 「上帝」의 개념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徐中芷, 民國81年: 4-5쪽; 周伯戡, 1975: 21-30쪽).³⁴⁾ 회맹은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西周시대에는 정치적인 의의 또한 함유하고 있었는데 다음의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고로 현명한 군주의 제도는 제후로 하여금 매년 聘問함을 자기의 志業으로 하고, 2년에 朝覲을 한번 행함으로써 예의를 강습하고, 다시 朝覲함에 제후와 모임으로써 위엄을 드러내고, 다시 모여 결맹함으로써 신의를 보이는 것이다. 友好중 자신의 職責이 기억되고, 등급의 질서로 예의를 강습하며, 백성을 향해 위엄을 드러내고, 神을 향해 信義를 표시하는 것이다.³⁵⁾

31) 劉伯驥(民國51年), 『春秋會盟政治』, 臺北, 中華叢書編審委員會.

32) 『釋名·釋言語』卷四, 『欽定四庫全書』經部.

33) 『周禮』, 『諸子集成』(北京, 中華書局, 1954), 540쪽: 凡邦國有疑會同, 則掌其盟約之載及其禮儀, 北面詔明神, 既盟, 則貳之.

34) 앞의 논문, 『春秋時代의盟誓』; 周伯戡(1975), 『春秋會盟與霸王政治的基礎』, 『史原』1975年 第6期.

35) 『左傳·昭公十三年』, 『春秋左傳今註今譯』下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1164쪽: 故明王之制, 使諸侯歲聘以志業, 間朝以講禮, 再朝而會以示威. 再會而盟以顯昭明. 志業於好, 講禮於等, 示威於衆, 昭明於神.

『穀梁傳·穩公元年』의 기사에는 祭伯이 왔으나 朝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實內的 제후는 天子의 命으로 온 것이 아니며 나아가 제후와 회동할 수 없고, 그 外交를 바르게 할 수 없으므로 朝覲하지 않은 것이다.”³⁶⁾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회맹은 마땅히 고대의 예절 가운데 하나로 朝聘과 유사한 天子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周 天子는 회맹을 이용하여 제후를 통하였고, 천자의 명령이 없으면 제후들 사이에서 회맹을 하지 못하였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西周의 봉건제도가 점차 붕괴되고 周 천자의 지위도 쇠락하였다. 宗法정신과 제도가 와해되는 정황 하에서 각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霸主는 周 천자를 대신하여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였고, 원래 천자에게 속해 있었던 회맹의 권력은 패주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春秋輯傳·友中篇』에서는 이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회맹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권한인데, 혹 천자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맹하는 것은 罪다. 때문에 春秋에 무릇 會盟으로 기록된 것은 모두 제후의 罪이다.³⁷⁾

비록 상술한 인용문과 같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패주가 각국의 관계를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스러웠던 춘추시대 속에서 패주는 강대한 무력을 지니고 있던

36) 『穀梁傳·穩公元年』, 『十三經注疏』(臺北, 藝文印書館, 民國54年), 11쪽: 十有二月. 祭伯來. (傳)來者. 來朝也. 其弗謂朝, 何也? 實內諸侯, 非有天子之命, 不得出會諸侯, 不正其外交, 故弗與朝也.

37) 『春秋輯傳』春秋宗旨卷, 『欽定四庫全書』經部: 會盟者, 天子之權也. 其或不出於天子而私會私盟者, 罪也. 故春秋凡書會書盟者, 皆罪之諸侯.

것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각 제후들을 복속시켜야 할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회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荀子は 패주가 稱霸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政令이 한번 선포되면, 비록 이해가 맞닿더라도 변경하여 그 민을 속이지 않으며, 협약이 한번 체결되면 비록 이해가 맞닿더라도 그 동맹국을 속이지 않는다. 이와 같다면 군대는 강해지고 성은 견고해져 적국도 그것을 두려워하며 나라가 하나 되고 기본이 분명해져서 동맹국이 그것을 믿게 되어 비록 궁벽한 곳에 처한 나라일지라도 위세가 천하를 움직일 만하다. 五伯이 바로 그들이다. … 그러므로 제 환공, 진 문공, 초 장공, 오 합려, 월 구천은 모두 궁벽진 나라면서도 위세가 천하를 움직이고 강대함이 중앙의 나라를 위태하게 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의를 앞세우면 패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³⁸⁾

상술한 인용문은 오직 信에 의지하여야만 비로소 각 제후들로 하여금 信服케 하며, 천하의 인심을 얻어 각국 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五霸 중의 하나인 齊桓公이 바로 그 예라 하겠다. 제 환공은 魯나라와 柯에서 회맹하였는데, 曹沫이 환공을 위협하며 魯로부터 빼앗은 지역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환공은 후에 이를 후회하였으나, 管仲은 환공에게 만약 그때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제후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천하의 인심을

38) 『荀子·王霸篇』, 『荀子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203쪽: 政令已陳, 雖睹利敗, 不欺其民; 約結已定, 雖睹利敗, 不欺其與. 如是, 則兵勁城固, 敵國畏之; 國一慕明, 與國信之. 雖在僻陋之國, 威動天下, 五伯是也. … 故齊桓·晉文·楚莊·吳閔閭·越勾踐, 是皆僻陋之國也, 威動天下, 彊殆中國, 無它故焉. 略信也—是所謂信立而霸也.

잃어버리게 된다고 충고하였다.³⁹⁾ 때문에 본 장의 첫머리에 언급한 바와 같은 “환공의 믿음이 천하에 드러난 것은 柯의 맹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⁴⁰⁾는 기록이 보이게 된 것이다. 패주가 능히 稱霸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외교와 정치를 수행함에 있어 나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 董仲舒가 말한 바와 같이 “공자의 문중에서는 五尺童子도 오패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 까닭은 그들이 술책과 무력을 앞세우고 인의와 도의를 뒤로 했기 때문”⁴¹⁾은 아닐 것이다.

춘추시기의 회맹의 구속력은信的 기초 위에 건립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左傳·昭公十三年』의 기사에 晉侯가 叔向을 劉獻公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제나라 사람들이 결맹하지 않고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고하게 하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결맹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군왕이 만약 믿음이 있으면 제후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라는 부분⁴²⁾이 보인다. 바로 서로의 신뢰가 기반이 될 때 결맹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이 경우에는 제후들의 이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하여 『左傳·成公八年』의 기사에 보면 季文子가,

大國은 대의에 맞게 일을 함으로 맹주가 되는 것이고, 이로써 제후들은 덕을 생각하고 토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39) 『史記·刺客列傳』(臺北, 鼎文書局, 1975), 2360쪽.

40) 『公羊傳·莊公十三年』, 『春秋公羊傳今註今譯』上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119쪽: 要盟可犯, 而桓公不欺. 曹子可仇, 而桓公不怨, 桓公之信著乎天下, 自柯之盟始焉.

41) 董仲舒, 『春秋繁露』(上海, 古籍出版社, 1989), 56쪽.

42) 『左傳·昭公十三年』, 『春秋左傳今註今譯』下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1164쪽: 晉侯使叔向告劉獻公曰: 「抑齊人不盟, 若之何?」對曰: 「盟以底信, 君苟有信, 諸侯不貳, 何患焉.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의로써 명을 완성하니 이것이 바로 小國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을 알 수 없고, 의가 서지 못한다면 사방의 제후 그 누가 흠어지지 않겠습니까?⁴³⁾

라고 하여, 춘추시기의 회맹은 결국 信을 중시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春秋』에 기재된 242년 중, 朝·觀·盟·會는 450여 차례에 이른다. 춘추이전에는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제후로 하여금 매년 聘問함을 자기의 志業으로 하고, 2년에 朝觀을 한번 행함으로써 예의를 강습하고, 다시 朝觀함에 제후와 모임으로써 위엄을 드러내고, 다시 모여 결맹함으로 신의를 보인 것」이지만, 춘추시대에 보이는 다수의 맹회는 바로 信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信을 기반으로 하는 맹회가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열국관계에 있어 信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비록 춘추시대에 신하가 군왕을 죽이는 등의 배신과 신의를 저버리는 예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상으로는 여전히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徐難于, 1995: 41쪽).⁴⁴⁾

IV. 결론

「信」이 실질적 개인의 도덕행위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信이 진정 윤리도덕의 관념이 된 것은 춘추시대부터였

43) 『左傳·成公八年』, 『春秋左傳今註今譯』 中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667쪽: 大國制義, 以爲盟主, 是以諸侯懷德畏討, 無有貳心. … 信以行義, 義以成命, 小國所望而懷也. 信不可知, 義無所立, 四方諸侯, 其誰不解體?

44) 徐難于(1995), 「試論春秋時期的信觀念」, 『中國史研究』, 1995年 第4期.

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시기 유가가 이를 계승하여 완벽한 사상체계를 건립하였다. 선진시기 諸子의 信에 대한 견해는 비록 각기 다른 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信이 중요한 도덕윤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하였다.

춘추시대는 비록 예와 악이 붕괴되고 周 天子의 지위가 상실되어 패주와 서약, 결맹 등에 의존하여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信의 관념이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춘추의 정치로 하여금 상당한 도덕성을 갖추게 하였고, 회맹정치의 발흥과 발전으로부터 당시 사람들이 信에 대한 重視를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근원적인 탐색을 통한 비교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시대기풍이 더욱 교활하고 괴이해져 권모와 무력을 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 듯 인식되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 간에는 서로 속이고 믿음을 깨뜨리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信을 논할 수 없었다. 서약 또한 거의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합종연횡을 이룬 각국은 「利」에 근거하여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한 결과 결국 秦의 천하통일이 완성될 수 있었다.

춘추시대 인식된 信의 관념은 그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 중에는 또한 영원불변의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信이 갖고 있는 윤리도덕의 관념은 사공을 초월하는 영원성, 즉 만고불변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信의 윤리도덕에 내재된 의미는 외부의 열악한 시공과 환경으로 좌절될 수 없지만, 아마도 현실정치의 이해와 충돌하였을 때에는 信의 관념이 희생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信이라고 하는 윤리도덕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사람이 처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영원불변한 기본덕목일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信의 관념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고자 한 본문에서의 시도는 향후 공유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대한 근원적 요소를 탐색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탐색한 역사적 내용들이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제주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의 요소에 대한 현실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信」관념은 이후 전국시대 및 통일제국시대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계속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근원적 탐색을 위한 중국 춘추시대 이후 「信」의 식의 변화에 대한 탐색은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기려 한다.

참고문헌

- 『國語·周語下』卷三, 『欽定四庫全書』史部
 『論語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孟子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史記』(臺北, 鼎文書局, 民國88年6月, 十一版)
 『釋名·釋言語』卷四, 『欽定四庫全書』經部
 『荀子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十三經注疏』(臺北, 藝文印書館, 民國54年)
 『日知錄』卷十三「周末風俗」, 『欽定四庫全書』子部
 『戰國策·燕策一』(臺北, 里仁, 民國71年)
 『諸子集成』(北京, 中華書局, 1954)
 『春秋公羊傳今註今譯』上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春秋左傳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春秋輯傳』春秋宗旨卷, 『欽定四庫全書』經部
 『韓非子今註今譯』下冊(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1年)
 董仲舒, 『春秋繁露』(上海, 古籍出版社, 1989)
 司馬光, 『自治通鑑·周紀』(臺北, 宏業書局, 民國82年10月, 再版)
 莫金山(1996), 「春秋列國會盟之演變」, 『史學月刊』, 1996年 第1期
 傅劍平(1995), 『縱橫家與中國文化』, 臺北, 文津出版社
 徐難于(1995), 「試論春秋時期的信觀念」, 『中國史研究』, 1995年 第4期
 徐中芷(民國81年), 「春秋時代的盟誓」, 國立清華大學歷史研究所碩士論文
 姚秀彥(民國79年), 『先秦史』, 臺北, 三民書局
 劉伯驥(民國51年), 「春秋會盟政治」, 臺北, 中華叢書編審委員會
 李模(1997), 「試論先秦盟誓之制的演化」, 『殷都學刊』1997年 第4期
 張樹國(2001), 「信義的追求」,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黃開國(民國85年 3月), 「春秋時期的仁義忠信觀」, 『孔孟月刊』第34卷 第7期
 黃二國(1995), 「春秋列國會盟之演變」, 『中國古代史(一)』, 1995年 第5期

Abstract

The Notion of Trust(信) in the spring-autumn period
-A Preliminary Studies about Public Management of Nature in Jeju-

Jung, Chang-Won*

We can find obvious alteration in the notion about 'the trust(信)' from the spring-autumn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tes. However, definite research on question about 'How this alteration was formed and constructing what kind of influence, and had the notion of trust already been out of focus by people at least?' has not been proceeded yet.

In great tumult of spring-autumn period and confronting different situation and phase each other, so the notion of 'trust' was brought to the unavoidable situation for the distortion, therefore people began to lament for the fallen ethics.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d to research about how the ethos of the spring-autumn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tes was altering through analyzing alteration of the age that brought the change of notion of 'trust' und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spring-autumn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tes and observe occurred effects result from that.

Although 'Propriety(禮)' and 'Music(樂)' were collapsed and status of emperor of Zhou(周) was lost at the spring-autumn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tes, the age was to maintain the order of the world b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depending vow and signing of a treaty with the overlord. So, where can we find the reason? Just the notion of 'trust' became the basis that could restrain each other and it make politics of spring-autumn period, laying stress on the 'trust' of people at that time from spring up and development of the Covenant politics.

From reaching the age of warring states, however, because the ethos of that time became more trickier and grotesque, taking victory by trick and power was perceived as the best effective way. To making advantageous situation, each state repeated deceiving and breaking believe each others. In this situation, so, no more 'trust' could be discussed. We can see the vow was almost collapsed, and Qin(秦) could unify a whole country because each states which form the east-to-west confederacy of six states did not believe result from distrust of each others with being based on 'Profit(利)'.

Key Words

Trust(信), Profit(利), spring-autumn period(春秋時代), Public Management of Nature

교신 : 정창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cau16a@empal.com)

논문투고일 2012. 12. 10.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

